

# 해남 물김 생산 9만 3860t...전년비 4.5% 증가

위판액은 983억...다소 하락  
郡, 양식 기자재·처리제 지원  
김산업 장기 발전방안 수립

해남군의 올해 물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4.5% 증가해 9만3860t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는 양식 초기 수온이 낮아 수확량이 잠시 주춤했으나 점차 수온을 회복하는 등 해황이 안정되고, 김 생산 어업인들의 꾸준한 어장관리 노력으로 지난해(8만9796t)에 비해 생산량이 증가했다.

군은 생산량 증가에도 물김 위판액은 983억원으로 지난해 988억원에 비해 다소 하락했다고 밝혔다. 인근 지자체의 양식 면허지 확대 등으로 전체 물김 생산량이 늘어나 가격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



물김 생산 어민들이 화산 구성리 항에서 물김 위판을 준비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이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물김 위판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1000억원대 생산을 곧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은 고품질 김 생산을 위해 친환경 김 어망 지원을 비롯해 친환경 양식 기자재 공급, 김 육상재묘, 김 활성화 처리제 지원 등 10종의 양식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해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해남 김 산업의 연건 분석 및 발전 전략을 수립해 지역 내 주도형 식품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김 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해남군은 전국 물김 생산량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물김 생산지이자 마른김 가공공장 또한 전국 최대로 100개소가 넘는 등 어민소득 증대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해남군의 올해 김 양식은 627어가에서 9611ha 면적에 12만 5000여척을 시설하고 있다.

한편 해남군은 올해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김 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해남군의 주도형 식품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원초의 수급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제품개발을 비롯해 생산기반 확충과 6차 산업과 연계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 완도군 '장보고한상 어워드' 특별전

완도군은 14일 지난해 장보고한상 어워드 수상자들의 성공스토리를 모은 특별전을 내년 4월까지 장보고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보고한상 어워드'는 완도군과 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재단이 지난 2016년부터 해외에서 경제와 문화영토를 확장하는 데 큰 공헌한 재외동포 기업인들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지난해에는 장보고한상 어워드 대상에 홍명기M&L Hong 재단 이사장이 선정된 것을 비롯해 국회의장상 정한영(한영 E&C 회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 김승호(김김홀딩스 회장), 해양수산부장관상 이재구(아이엘국제물류 대표) 씨 등이 선정됐다.

이번 특별전에는 이들의 성공스토리가 전시돼 있다.

장보고글로벌재단은 전시관을 방문한 관람자를 대상으로 오는 9월30일까지 감상문을 공모해 시상할 계획이다. 공모전 시상식은 10월 중 '장보고한상 어워드 시상식'에서 열린다.

감상문은 메일(changpogogf@gmail.com)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 지난달 문연 해남 수산물 위판장 낙지 유통 거점 자리매김 3억 8000만원 위판고

해남군 수산물 위판장이 지역 수산물 유통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15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달 5일 문연 수산물 위판장은 13일 현재까지 3억 8000여만원의 위판고를 올렸다. <사진>

해남산 낙지를 비롯해 주꾸미, 문어, 갑오징어, 돌게 등 수산물을 경매했다.

특히 해남산 낙지는 9만5606마리, 위판액 3억7500여만원을 기록했다.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된다면 연간 위판액 40억원을 넘을 것으로 군은 전망했다. 해남 전역에서 낙지가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크게 늘고 있다.

해남산 낙지 가격은 상품 한 마리 평균 8716원, 최고가는 1만원을 넘는 등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

해남산 낙지는 연간 200여이 생산되고 있지만 그동안 개인 집하를 통해 판매돼 제값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타지산이 해남산으로 둔갑하는 등 유통에 어려움이 많았다.

해남군은 올해 9000만원을 들여 군내 3개소에 낙지 산란장을 조성한다.

낙지자원 조성은 산란 전 어미 낙지를 자연 상태로 방치해 낙지 생산량을 늘리고 서식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5~6월 중 화산 중정, 오산 등 3개 어촌계에 어미 낙지 3000마리를 방생한다. 어미낙지 1마리당 평균 100개 정도의 알을 가지고 있어 낙지 생산량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 진도군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호응

30개 마을 600명 대상 교육

진도군이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치매안심센터를 우선 개소해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사진>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진도군에 따르면 60세 이상 지역 주민의 ▲치매 조기검진 ▲가족상담 ▲쉽터운영 ▲치매 상담 ▲치매 검진비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노인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인식표 발급 및 지문등

록사업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월 말부터 읍·면별 30개 마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 600명을 대상으로 주 1회 치매 예방교실을 16회 운영, 치매를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군은 4월 진도경찰서와 치매노인 실종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했다.

치매노인 대상자 명단을 송부하면 진도경찰서에서 가정방문, 지문을 사전 등록할 계획이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 완도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용역보고회

완도군은 해양과 섬, 연안, 숲을 아우르는 복합에코시스템서비스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15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열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를 위한 예비신청서 작성 중간 용역보고회에서 해양-섬-연안(갯벌-숲)을 아우르는 복합 에코시스템서비스 방안을 구상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완도군의 해양, 섬, 갯벌, 숲을 아우르는 생태환경과 아름답고 독특한 섬 문화유산을 지속가능토록 보전 발전시키기 위해 학술 자료 확보와 가치 발굴,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완도군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깨끗한 청정 바다와 265개 섬이 있고 갯벌에는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또 완도의

주산인 상왕봉에는 국내 유일의 난대림 수목원이 위치해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지역적 특성을 모두 갖고 있다.

연구진은 완도군만의 지정 전략으로 ▲바다와 숲을 아우르는 생태 환경 ▲구

들장 눈과 같은 인간과 자연과의 현명한 이용 ▲정경환경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등 생물권보전 지역에서 생활하는 인간과의 조화 등을 제시했다.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 진도군 양식어업 18건 등 연안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진도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연안어장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위해 수립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승인했다.

해조류양식어업 18건 348ha, 패류 양식어업 13건 87ha, 복합양식어업 7건 108ha, 마을어업 3건 68ha 등이 각각 개발 승인됐다. 개발 유형별로는 기존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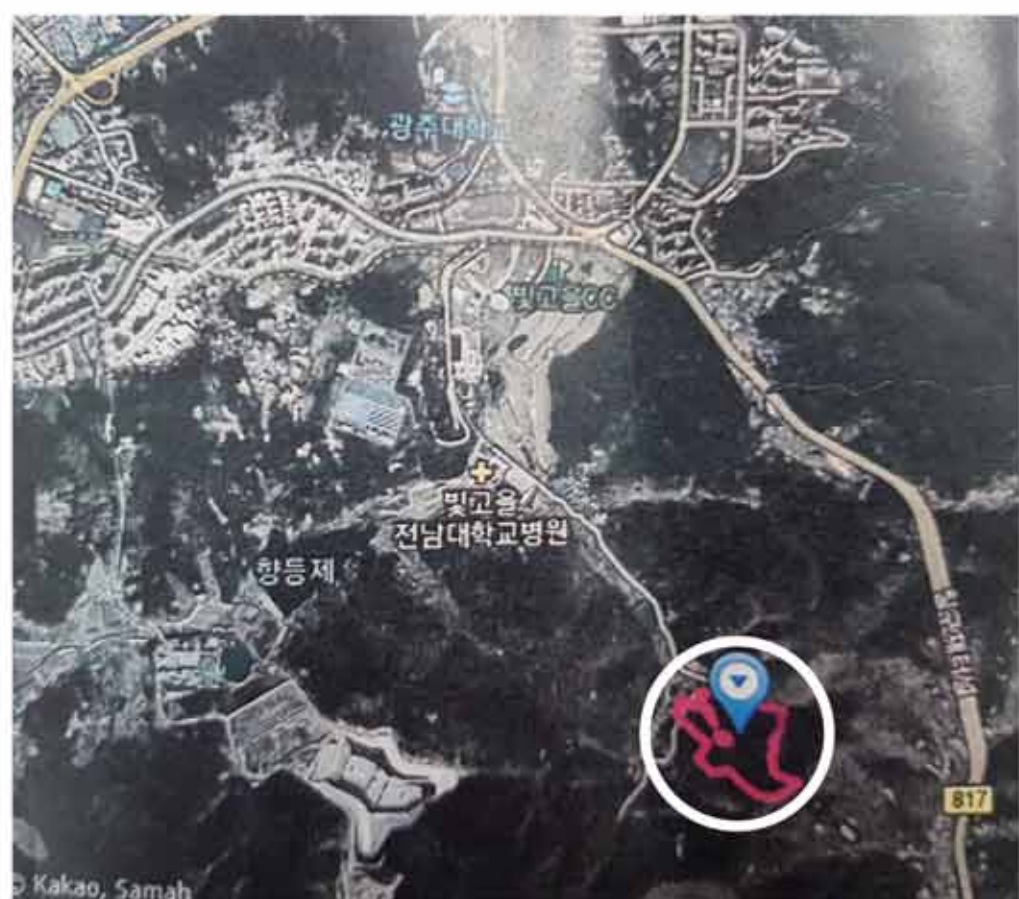
의 어업 면허 기간 만료에 의한 재개발 31건 534ha, 기존어장 이설 및 포기 조건 대체개발 10건 77ha이다.

지난해 말까지 진도군이 개발한 어장은 2만8603ha(860건)에 달한다. 이 중 해조류 양식이 1만8999ha(265건)로 가장 많고, 마을어업 5347ha(148건) 순이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 덕남동, 임야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70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3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맹지)
- 매매 - 평당 20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문의. 010-6838-1230



※최고 투자물건 입니다※